

대학생의 신앙성숙도와 자아정체감에 관한 연구 - 기독교 영성프로그램 참여 전후 비교를 중심으로 -

최윤영*

논문초록

본 연구는 기독교 영성프로그램이 대학생의 신앙성숙도와 자아정체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탐구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다룬 B 대학교의 기독교 영성프로그램(PIES Program)은 전인적 인성교육을 위하여 지성, 감성, 영성에 초점을 두고 대학생들의 신앙성숙과 자아정체감을 확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경배와 찬양 예배, 공동체 훈련, 개별 상담 및 집단 상담 등이다. 연구 방법은 사전-사후 검사 실험의 집단 실험 설계법을 사용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는 SPSS 15.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고 기술통계 분석, 상관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B 대학교의 기독교 영성프로그램은 대학생의 신앙성숙과 자아정체성에 긍정적인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PIES 영성프로그램은 참여 학생들에게 자아정체감이 향상되도록 긍정적인 도움을 주고 있었으며, 참여자의 대학생활 적응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참여 전에 비해 참여 후에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가 취업을 위주로 하는 우리나라 대학교육의 현장에서 경쟁을 위한 스펙 늘리기 보다는 지성·인성·감성·덕성이 강화된 역량 있는 인재양성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주제어: 영성프로그램, 신앙성숙도, 자아정체감, 전후비교조사

* 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2012년 8월 2일 접수, 9월 4일 최종수정, 9월 24일 게재확정

I. 서론

1. 연구의 배경

최근 우리나라의 대학생들은 과거와 달리 자신의 모습이 어떠하며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해 생각할 기회를 거의 가지지 못하고 있으며, 적성과 진로가 아닌 성적과 합격 위주로 대학을 선택하다보니 학교생활 적응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갖고 있다(김현정, 2006). 또한 급변하는 한국 사회에서 자신의 가치관을 확립하고 사회문제를 인식하며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진로선택을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대학생들은 학창 시절 주로 입시라는 커다란 틀에 통제되어 타율적인 생활이 습관화 되다가 대학교에 입학하면서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져야 하는 자율적인 환경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호소한다. 실제로 많은 대학생들이 학교생활문제, 이성 및 대인관계 문제, 진로 및 취업 문제, 경제적 문제, 가치관 문제 등 적응의 어려움을 보인다(윤향숙 외, 2011).

현재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자아정체감의 부족으로 인한 정서적 어려움과 대인관계 및 자기관리 기술 등의 부족으로 대학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실정이다(김은정, 1995). 생애발달 관점에서 대학생활은 개인의 일생 동안에서 중요한 시기이며 자신이 겪어야 할 여러 가지 심리적, 사회적, 환경적 문제들을 스스로 능동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배움의 시기이다. 그래서 학업의 성취뿐만 아니라 가치관의 정립, 합리적인 의사결정, 자율적인 의사소통과 행동양식의 습득 그리고 원활한 대인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할 필요가 있다(Baker & Siryk, 1984).

일반적으로 대학생들이 직면한 위기와 과업에 대해 자신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상이하다. 최근 빈번하게 발생되어지는 대학생들의 자살이나 경제적인 어려움과 위기들은 대학생들의 육체와 정신을 모두 힘들게 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 환경적인 요인들이 대학생활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대학생들의 자아정체감을 약화시킬 수 있다.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바람직한 학교생활을 하며 급변하는 사회 환경을 잘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높은 자아정체감이 요구된다(이경민·신민철, 2009). 대학생의 올바른 진로 선택과 더불어 자아정체성의 확립은 매우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이며 자아정체감은 목표 수준과 몰입에 영향을 주어 개인의 삶의 방향을 결정 짓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자아정체감은 직업선택이나 진로

의식변화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자아정체감이 높을수록 자신의 직업선택에 있어 더 많은 노력을 부여한다고 한다(Hackett & Betz, 1986). 그러므로 대학생들의 자아정체감을 건전하게 확립시켜 하나님과의 관계와 자기 인식을 일관성 있게 유지해 가는 것은 기독교적인 전인적 인격형성에 매우 중요한 것이다.

한편 기독교 대학의 대학생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성숙한 기독교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기초로 한 영성교육이 요구되어진다. 기독교 교육의 목적을 “만남을 위한 교육”으로 정의하고 참된 회심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며 이러한 만남 이후 지속적인 신앙의 성장을 위해 기독교적인 영성교육 프로그램이 요구되고 있다(고용수, 1994). 특히 기독교적인 인성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독교 대학에서는 영성교육을 바탕으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형성하는 신앙성숙과 자신을 돌아보는 성숙한 삶을 지향하는 자아정체감 확립에 노력을 해야 한다.

2. 연구의 목적과 연구문제

본 연구는 B 대학에서 제공되는 기독교 영성프로그램이 대학생의 신앙성숙도와 자아정체감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탐구해보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기독교 영성프로그램의 배경 요인이 신앙성숙도와 자아정체감에 대해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실증적으로 탐구 한다. 본 연구를 위해 기독교 영성프로그램의 참여 전·후 비교에 따라 대학생의 신앙성숙도와 자아정체감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대학생활에 대한 적응능력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비교 조사하고자 한다.

II. 선행연구 검토 및 이론적 배경

1. 선행연구 검토

대학생의 자아정체감에 관한 연구는 주로 자기성장과 자아정체감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과 진로결정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진로교육 프로그램 등이 연구되었으며 자아정체감을 측정 또는 평가하는 방법으로 주로 질문지법이 사용되었다(정옥분, 2005).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자아정체감의 형성에 있어 기독교 신앙성숙도가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난다. 기독교 신앙성숙과 자아정체감과의 관계에서 신앙성숙도와 자아정체감 사이에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즉, 신앙이 성숙한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자아정체감이 더 확립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기독교 신앙을 가진 조사 대상자들이 신앙이 없는 조사 대상자들에 비해 자아정체감 형성에 굴곡 없이 일정하게 자아정체감이 형성된 것으로 연구되고 있다(김영대, 1998; 김영환, 1996; 김은희, 2007; 최재희, 2005).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신앙과 관련된 연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신앙성숙도와 관련된 연구는 매우 미약할 뿐만 아니라 대학생의 자아정체감과 관련하여 신앙성숙도에 관한 연구는 많지 않은 실정이다. 하지만 대학생들에게 자아정체감은 대학생들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사회생활에서 자신의 행동과 적응문제에 영향을 끼치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 신앙성숙도 역시 그리스도인으로서 건강한 자존감을 형성하고 다양한 사회적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20대의 대학생들에게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2. 이론적 배경

1) 신앙성숙도(Faith Maturity)의 개념

신앙성숙도(Faith Maturity)란 기독교인의 신앙의 정도를 나타내는 척도라고 할 수 있으며, 인지적·정의적·의지적인 측면을 모두 포함하며 하나님과의 역동적인 관계를 이루며 영성이 성숙되는 과정을 의미한다(박신미, 2005). 여기서 신앙에 대해 Calvin(1986)은 오로지 복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마음의 확고한 확신이라고 정의하였다.

신앙성숙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 속에서 실천하는 신앙이다. 성숙된 신앙인은 자신의 개인적인 신앙생활, 교회내 성도간의 생활, 교회 밖의 친사회적인 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개인의 신앙생활과 교회생활, 사회생활 등에 있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함으로써 새로운 생명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도 지속적으로 신앙을 성장시

켜야 한다. 또한 신앙성숙은 온전히 자란 신앙으로 죄인의 신분으로 있을 때의 자기중심적인 신앙에서 벗어나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이다. 성경적 의미의 신앙은 인식적인 차원이 아니라 믿고 의존하는 관계성이 있다. 그래서 참다운 신앙은 사랑과 신뢰 속에서 이루어지는 친밀한 관계를 보여주는 것으로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관계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신앙성숙은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성에 대한 균형과 조화를 필요로 하며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끊임없이 요구된다(문석호 1999).

2) 자아정체감(Ego-identity)의 개념

자아정체감(Ego-identity)이란 용어는 1950년대 Erikson이 처음 사용하였는데, 어원적으로는 'Identitas'에서 유래된 것으로 “전적으로 동일한 것” 내지 “자기 자신, 정체” 등의 의미를 나타낸다. 자아정체감은 사회 현실과 교류하면서 생기는 전반적인 자기 존중으로 과거, 현재, 미래가 연속적으로 동일성을 유지하여 구성원 간에 공유를 매개로 얻어지는 연대감에 기초를 둔 자존감 및 긍정적인 자기존중을 의미한다(박아청, 2006). 또한 자아정체감은 어느 한 시기에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일생동안 계속적으로 발달해 간다. 자아정체감은 한 개인이 자기가 누구이며, 어디에 있으며, 어디로 향하는가에 대해 과거, 현재, 미래의 연속성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자신을 독특한 의미를 지닌 존재로 인지하여 여러 가지 동일시와 자신의 능력, 사회적 역할을 융합하여 하나의 자아를 찾으려는 자아통합적인 과정이다(최재희, 2005).

Nathaniel Branden(1994)은 자아정체감을 인간의 모든 존재에 깊은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보고 건강한 자존감과 열등한 자존감으로 구분하였다. 건강한 자존감은 합리성, 현실주의, 직관적, 창조성, 독립성, 융통성, 자비심, 협동 등과 관계되며, 열등한 자존감은 불합리, 사실에 대한 맹목, 완고함, 생소하고 새로운 것에 대한 두려움 등과 관계가 있다고 보았다. 이처럼 자아정체감은 주체성, 자기정의, 자기 존재 등을 스스로 규명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자아정체감 형성의 주 역할자는 자아이며 자아는 개인의 능력, 욕구, 욕망에 대한 지식과 사회적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식을 종합한다.

한편 기독교인의 자아정체감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인

간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하나 뿐인 자신의 독생자를 보내시어 십자가에 죽음으로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셨음을 믿는 것이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을 믿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다.

결국, 자아정체감이란 자아의 갈등을 통한 사회적 상호 작용을 통해 형성되며 미리 어떤 기제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성장 과정을 통해서 대상으로부터 반영되는 총체적인 자기상이라고 할 수 있다.

3) 영성훈련(spirituality Training)의 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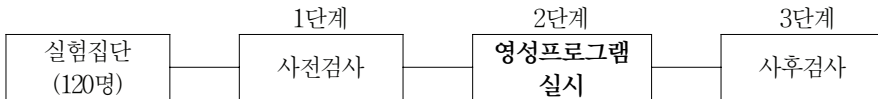
일반적으로 영성(spirituality)이라는 말은 라틴어의 ‘spiritualitas’에서 유래되어 물질과 반대되는 ‘내적인 영적 본질’을 의미하며, 신학적으로 영성은 단순히 물질적인 것과 반대되는 내적이며 정신적인 속성을 의미하는 것보다는 인간의 존재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의 관계성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유정득, 1999). 그러므로 영성이란 영의 작용이 생각, 감정, 판단, 태도 및 행위로 드러난 외적 발현이기 때문에 영이란 기능적으로 작용하는 힘이며, 이러한 영의 질적 측면이 영성이다(오복자·강경아, 2000). 여기서 기독교 영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분을 통해 성삼위에 이르는 영성을 말하며, 예수님과 의 인격적인 교제의 삶을 의미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Aumann 1994; 오성춘, 1995).

또한 성서는 신앙인들이 가져야 할 영성훈련에 대해 많은 교훈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바울은 “경건한 생활에 힘을 기울이는 훈련을 쌓으시오. 육체적인 훈련이 가져다주는 이익은 대단한 것이 못됩니다. 그러나 경건한 생활은 모든 면에서 유익합니다(딤후 4:7~8)”라고 디모데에게 권면하였다. 한편 Richard Foster(1982)는 영성훈련을 위한 구체적인 13가지 훈련방법들을 제시하였으며, 여기에는 우선 내면의 훈련으로 묵상, 기도, 금식, 공부훈련 등이 해당되며, 외면의 훈련들로는 고독, 순종, 섬김 훈련을 그리고 공동체 훈련으로는 예배, 고백, 칭찬 훈련을 제시하였다.

III. 연구방법

1. 실험설계

실험방법은 사전-사후 검사 실험의 집단 실험 설계법을 사용하였다. 사전검사는 집단 상담 1회기에 실시했으며 이후 실험집단에 대해 사후검사를 실시하였다. 실험집단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24시간 동안 계획된 PIES 훈련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으며, 프로그램 활동이 끝난 후에는 참여자들이 프로그램에 대한 자신의 느낌과 소감을 발표하고 일기문 형식으로 하루의 활동을 기록하도록 하였다. 마지막 토요일 프로그램 일정이 끝난 직후에 사후 검사를 실시하였다.



[그림1] 실험설계모형

2. B 대학교의 기독교 영성프로그램인 PIES 훈련 프로그램¹⁾ 개요

본 연구에서 다룬 충남 B대학교의 PIES 훈련 프로그램은(Physical, Intellectual, Emotional, Spiritual Program) 기독교적인 인성교육의 교육 원리를 바탕으로 인간의 인성을 네 가지의 측면으로 구분하고 인성함양을 위해 각 측면을 각각 개별적이며 통합적으로 교육·훈련하는 프로그램이다. PIES 훈련 프로그램은 전인적 인성교육을 위하여 신체성, 지성, 감성, 영성에 초점을 두고 대학생들의 정서 및 심리적인 문제들에 대한 해결 능력을 배양하고 있다. 주요 프로그램 내용은 경배와 찬양 예배, 공동체 훈련, 전문 특강, 개별상담 및 집단상담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5박 6일간 제주도 00

1) 기독교 영성프로그램이란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그 내용을 자신의 삶속에서 실천하는 행위이며, 그 실천하는 행위에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만남 속에서 자신과 타인과의 관계에 의미와 목적을 두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기독교라 함은 ‘개신교’로 한정함을 밝힌다.

수양관에서 매 학기를 마치고 방학 중에 일주일간 실시되고 있다.

PIES 훈련 프로그램의 주요 목적은 기독교 대학의 기독교적인 인재 양성과 함께 대학생들에게 미래를 위한 신앙성숙과 자아정체성 확립을 통한 영적인 꿈과 비전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PIES 훈련 프로그램의 각각 4가지 영역들은 상호 연관성을 가지며, 상호 긴밀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PIES 훈련 프로그램의 영역과 개별 프로그램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영역 구분	프로그램 내용
Physical Program	기독교 문화관을 소유한 자로서 신체훈련(하나님의 섭리순종) : 공동체 훈련, 미니올림픽, 올레길 걷기, 한라산 등반 등
Intellectual Program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한 자아관의 지성훈련(존재론적, 가치론적, 목적론적): 전공과 관련된 진로 특강, 명사초청 특강 등
Emotional Program	하나님의 의와 구속을 기뻐하는 정서 훈련(죄책감, 죄, 허물, 부정적 감정 추방): 레크레이션, 조별과제, 드라마, 간증 등
Spiritual Program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생명 소유): 말씀, 경배와 찬양, 기도회, 그룹 성경공부 등

[그림2] PIES 훈련 프로그램 교육 내용

이처럼 PIES 훈련 프로그램은(Physical, Intellectual, Emotional, Spiritual Program) 기독교적인 인성교육의 교육 원리를 바탕으로 인간의 인성을 네 가지의 측면으로 구분하고 있다. 신체훈련(Physical Program)과 지성훈련(Intellectual Program)은 자아정체감을 확립하도록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한 자아관 확립을 위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서훈련(Emotional Program)과 영성훈련(Spiritual Program)은 하나님의 의와 구속을 체험하는 내용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생명을 소유하는 내용으로 신앙성숙도를 향상시키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1) 신체적 측면(Physical aspect)

개혁주의 생명 신학은 인간의 육신까지도 하나님의 고귀한 형상에 따라 지음 받은 존재로 부활의 그날에 영광스러운 몸을 입기까지 경건하고 건전한 훈련과 양육에 의

해 보존되어야 함을 믿는다(고전 15:43; 45; 51-55; 살전 5:23). 따라서 인간의 육체에 대해 인간의 근본적 본성과는 관계없는 생소한 부분이라고 주장하는 관념론적 인간관이나 물질적 구성의 부산물로 보는 물질주의적 인간관을 배격한다. 이에 PIES 프로그램 추구하는 신체교육(physical training)은 건전한 신체에 깃든 건전한 신앙인격을 위해 신체적 훈련의 중요성을 간과하지 않는다.

2) 지적 측면(Intellectual aspect)

세상의 모든 지식은 하나님의 지식이고 모든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이다(All truth is God's truth). 진리를 탐구하는 학문적 연구결과는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리를 탐구하는 일이다. 또한 인간의 거듭남은 지식에까지 미치는 것으로 성경은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좇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한다(골3:9-10). 이에 PIES 프로그램은 성경이 모든 진리의 근본임을 믿는 기독교 학문적 전제 위에 학문하는 기독교 지성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3) 감성적 측면(Emotional aspect)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며(창 1:26) 그 형상은 영적이고 육신적인 형상뿐만 아니라 전인적인 형상을 말한다(창 1: 31; 전 7:29). 그리고 현대의 건강은 육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 정서적, 감정적 건강을 총체적으로 포함한다. 인간을 인간 되게 하는 하나님 형상은 영적인 타락에도 불구하고 자연적인 감정과 도덕적인 자유 등을 포함하여 일컫는 것이다. 하나님의 형상은 비록 죄로 말미암아 손상된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사람 안에 잔존하고 있으며(창 9:6; 고전 11:7; 약 3:9)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 되어야 하는 것이다. 건강한 인격을 소유한 사람에게 있어 회로애락의 정서는 적절하게 표현되어야 한다. 주님은 우리에게 우는 자와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라 하셨다(눅 12:15). 그리고 성경은 무릇 지킬 만 한 것 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 말씀하신다(잠 4:23). 결국 하나님 형상의 정서적 회복은 사람에게 있어 중요한 부분으로 강조된다.

4) 영적 측면(Spiritual aspect)

사람의 구성적 본질은 육체와 영혼이다(마 6:25; 전 12:7; 고전 5:3,5). 육체가 인간 본성의 물질적 부분이라면 영혼은 우리의 육신을 통제하는 생명과 행동의 원리요 인간 행위의 주체이다(시 10:1-2;104:1;사 42:1). 비록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넓어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게 해야 하며(고후 4:16). 주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야 한다(엡 3:16).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랑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모든 것들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는 것(고전 2:9)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는 것(고전 2:12)이기에 영성인 측면은 그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3. 연구절차와 측정도구

본 연구 자료 수집은 2011년 12월 26부터 12월 31까지 일주간에 걸쳐 실시되었다. 조사 대상자에게 본 연구의 목적과 설문내용을 설명한 후 프로그램 시작 전과 시작 후 각각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실험집단인 120명을 대상으로 회수된 설문지는 응답이 불성실한 자료를 제외하고 남학생 43명 여학생 62명으로 총 105명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 도구는 신앙성숙도 검사와 자아정체감 검사이다. 신앙성숙도 측정을 위한 척도는 Basset (1981)의 The Shepherd Scale과 김성중(1996)의 신앙고백, 교회생활, 사회생활 등의 38문항과 김은희(2007)를 활용하여 39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조사도구의 Cronbach's α 계수는 .819로 나타났으며, 측정을 위한 척도는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의 Likert 식 5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또한 자아정체감 측정을 위한 척도는 Dignan(1965)의 Ego-Identity Scale과 김영대(1998)의 Scale을 참고하여 자아정체감 측정을 위한 총 25문항을 구성하였으며, 사용된 조사도구의 Cronbach's α 계수는 .788로 나타났다. 척도는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의 Likert 식 5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결과 분석을 위해 수집된 자료는 SPSS 15.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고 기술 통계분석 상관분석, 다중회기분석을 실시하였다.

IV. 분석결과

1. PIES 훈련캠프 참여 학생의 일반적 특성

PIES 훈련캠프 참여 학생의 성별 비율은 남학생(43명, 40.95%)에 비해 여학생(62명, 59.05%)이 다소 높게 나타난 가운데 1학년과 3학년이 각각 38명(36.54%)과 31명(29.81%)으로 2학년(24명, 23.08%)과 4학년(11명, 10.58%)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참여율을 보였다. 참여 학생들의 종교는 기독교가 91명(86.67%)으로 가장 많았으나, 무교 역시 12명(11.43%)으로 비교적 높은 편이었다. 캠프 참여 학생들이 현재 함께 거주하는 가족으로는 부모님이 86명(81.90%)으로 가장 많았으며, 형제 역시 18명(17.14%)으로 주된 동거 가족구성원이었다. 참여 학생들이 느끼는 본인 가정의 주관적 경제수준은 중(54명, 51.43%), 중하(32명, 30.48%), 중상(12명, 11.43%), 하(7명, 6.67%)로 조사되었다. 훈련캠프 학생들의 주된 등록금 마련 방법은 부모님(61명, 58.65%)과 학자금대출(44명, 42.31%)이었고, 장학금(19명, 18.27%) 역시 많은 학생들에게 등록금 마련의 방법의 일환이 되고 있었다. 한편, 신앙, 인성, 사회성 성숙을 위해(52명, 49.52%) 및 다양한 경험과 체험을 위해(41명, 39.05%) 2011년 동계 PIES 훈련캠프에 참여한 학생이 주를 이루었고, 그 외에는 학점취득 및 인증서 취득을 위해(29명, 27.62%) 및 취업에 도움을 받고 싶어서(17명, 16.19%), 친구들을 많이 사귀고 싶어서(13명, 12.38%) PIES 훈련캠프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1〉 백석인증제 훈련캠프 참여 학생의 일반적 특성

구분		빈도	%	구분		빈도	%
성별	남자	43	40.95	경제수준	상	-	-
	여자	62	59.05		중상	12	11.43
학년	1학년	38	36.54	거주자 (복수응답)	중	54	51.43
	2학년	24	23.08		중하	32	30.48
	3학년	31	29.81		하	7	6.67
	4학년	11	10.58		혼자	9	8.57
종교	기독교	91	86.67	부모님	부모님	86	81.90
	가톨릭	2	1.90		형제	18	17.14
	무교	12	11.43		기타	7	6.67
등록금 마련 (복수 응답)	부모님	61	58.65	참여동기 (복수응답)	신앙, 인성, 사회성 성숙을 위해	52	49.52
	학자금 대출	44	42.31		다양한 경험과 체험을 위해	41	39.05
	스스로	8	7.69		학점취득 및 인증서 취득을 위해	29	27.62
	대학 장학금	19	18.27		취업에 도움을 받고 싶어서	17	16.19
	후원금	2	1.92		친구들을 많이 사귀고 싶어서	13	12.38
	기타	1	0.96		부서 장학금을 받기 위해	3	2.86

※ N=105명(참여前 기준)이며, 각 사항별 결측치는 제외함.

2. PIES 훈련캠프 참여 前·後간 대학생의 신앙심 변화 비교

1) 훈련캠프 참여 前·後간 신앙심의 변화 비교

PIES 훈련캠프 참여 전과 참여 후 간에 학생들의 신앙심 변화정도를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전반적으로 5점 만점에 참여 전 3.81에서 참여 후 4.08로 평균 0.27점이 향상된 가운데 모든 사항들이 향상되는 긍정적 효과를 보이고 있었다. 특히 가장 높은 수준의 긍정적 변화를 보인 항목은 0.57점이 향상된 ‘나는 예수그리스도를 따르면서 배운 바를 매일의 삶에 적용한다’이며, 그 외에는 ‘나는 기독교인들을 위해 봉사할 때 인정이나 칭찬받을 것을 기대하지 않는다(0.45점 향상)’, ‘나는 나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바침으로써 그가 나를 자유롭게 하여 내가 이전에는 결코 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그에게 순종하게 하는 것을 믿는다’ 및 ‘사회적 지위나 물질적인 소유는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다(이상 0.42점 향상)’, ‘나는 나의 행동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게 하나님에 대한 나의 믿음, 신뢰, 그리고 충실함을 보일 수 있다' 및 '나는 예수그리스도를 믿고 죄에서 떠나게 되었다(이상 0.41점 향상)', '나는 예수그리스도에 대한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도덕적인 영역에서 날마다 성숙한다고 할 수 있다(0.40점 향상)' 등이었다.

반면, 비록 소폭 긍정적 변화를 가져오긴 했으나 '나는 신앙과 가치관이 나와 다른 사람들과도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노력한다(0.09점 향상)', '나는 먼저 그 타당성을 모르는 종교적 신념을 받아들이지 않는다(0.07점 향상)', '나는 이 사회의 규율과 규칙을 존중하며 지킨다(0.03점 향상)' 등은 변화의 폭이 크지 않아 향후 보다 높은 성과를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할 항목이라 하겠다.

〈표2〉 훈련캠프 참여 前·後 간 신앙심 변화 비교

단위: 점(표준편차), 점

구분	참여前	참여後	증감
나는 하나님이 어떤 형태로든지 악을 떨하고 심판할 것을 믿는다.	3.97 (0.93)	4.11 (0.80)	0.14
나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함께 하며 나와 동행하고 있다고 믿는다.	4.01 (0.98)	4.33 (0.70)	0.32
나는 독실한 기독교인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도생활, 다른 사람을 돕는 것, 그리고 선한 행실의 분명한 의무가 있다고 믿는다.	4.08 (0.90)	4.29 (0.82)	0.21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믿는다.	4.20 (0.92)	4.36 (0.77)	0.16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따르고 그것을 매일 매일의 삶에 적용함으로써 평안, 확신, 소망과 같은 것들을 얻는다고 믿는다.	4.01 (0.90)	4.18 (0.87)	0.17
나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린 것을 믿는다.	4.15 (1.08)	4.30 (1.00)	0.15
나는 하나님이 나의 모든 행위에 대해 장차 심판할 것을 믿는다.	4.17 (0.92)	4.37 (0.79)	0.20
나는 나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바침으로써 그가 나를 자유롭게 하여서, 내가 이전에는 결코 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그에게 순종하게 하는 것을 믿는다.	3.86 (1.02)	4.28 (0.82)	0.42
나는 기적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나도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다고 믿는다.	3.96 (1.04)	4.23 (0.85)	0.27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율법은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하지 못한다.	3.72 (1.00)	3.94 (1.00)	0.22

구분	참여前	참여後	증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영접함으로써 영생을 얻는다.	4.07 (1.05)	4.18 (0.94)	0.11
내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이다.	4.08 (1.03)	4.28 (0.83)	0.20
나는 모든 사람들이 삶의 죄로 인해 왜곡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올바른 해결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고 믿는다.	3.83 (1.13)	4.20 (0.96)	0.38
나는 나의 말과 행동에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반영되도록 하는 것에 관심을 기울인다.	3.73 (0.98)	4.06 (0.87)	0.33
나는 나에게 대해 부정적 감정을 가진 사람들에게 인내, 친절, 자제심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대한다.	3.51 (0.92)	3.78 (0.94)	0.27
나는 누가 나를 지켜보는가와 관계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다.	3.73 (0.76)	4.06 (0.75)	0.33
사회적 지위나 물질적인 소유는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다.	3.22 (1.07)	3.64 (0.92)	0.42
나는 먼저 그 타당성을 모르고는 종교적 신념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40 (1.08)	3.48 (1.08)	0.07
나는 신앙과 가치관이 나와 다른 사람들과도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노력한다.	4.10 (0.63)	4.19 (0.74)	0.09
기독교적 행동규범을 지키는 것이 나에게 중요하다.	3.65 (0.96)	4.00 (0.77)	0.35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일치하는 믿음과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다.	3.88 (0.90)	4.10 (0.88)	0.22
나는 이 사회의 규율과 규칙을 존중하며 지킨다.	3.88 (0.68)	3.90 (0.71)	0.03
나는 기독교인을 존중한다.	4.08 (0.83)	4.20 (0.75)	0.13
나는 기독교인들과 내 소유물을 나눠준다.	3.50 (0.91)	3.82 (0.93)	0.32
나는 기독교인들과 기쁨이나 슬픔을 같이 나눈다.	3.71 (0.86)	3.98 (0.81)	0.26
나는 나의 행동이 기독교인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주의한다.	3.71 (0.81)	4.05 (0.79)	0.33
나는 기독교인들에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실을 말한다.	3.71 (0.84)	4.01 (0.85)	0.30
나는 기독교인들을 위해 봉사할 때 인정이나 칭찬받을 것을 기대하지 않는다.	3.39 (0.95)	3.84 (0.85)	0.45

구분	참여前	참여後	증감
나는 기독교인들 간의 단합에 대해 관심을 기울인다.	3.64 (0.88)	3.88 (0.88)	0.24
나는 기독교인들과 함께 시간 보내는 것을 즐긴다.	3.70 (0.95)	4.06 (0.87)	0.36
나는 나의 행동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나의 믿음, 신뢰, 그리고 충실함을 보일 수 있다.	3.50 (1.00)	3.90 (0.86)	0.41
나는 예수그리스도에 대한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도덕적인 영역에서 날마다 성숙한다고 할 수 있다.	3.57 (0.94)	3.98 (0.75)	0.40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의 명령에 순종한다.	3.70 (1.00)	4.05 (0.79)	0.35
내가 성취(성공)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4.10 (1.07)	4.30 (0.84)	0.21
나는 내 잘못을 하나님에게 고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4.34 (0.94)	4.51 (0.77)	0.16
나는 예수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다른 사람들에게 말한다.	4.13 (1.11)	4.34 (0.83)	0.20
나는 예수그리스도를 믿고 죄에서 떠나게 되었다.	3.56 (1.15)	3.98 (0.95)	0.41
나는 예수그리스도를 따르면서 배운 바를 매일의 삶에 적용한다.	3.16 (1.00)	3.73 (0.91)	0.57
신앙심 평균	3.81 (0.65)	4.08 (0.57)	0.27

2) 훈련캠프 참여 학생의 특성별 신앙심 비교

<표3>은 PIES 훈련캠프 참여 학생의 성별 및 학년에 따른 캠프 참여 前과 참여 後의 신앙심의 차이 비교 결과이다. 참여 前에는 성별 및 학년에 따라 신앙심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참여 後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던 성별과 달리 학년별로는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훈련캠프 참여 後 나타난 신앙심의 수준은 1/2학년에 비해 3/4학년이 보다 높은 점수를 보이고 있었다. 단, 성별 또는 학년별 신앙심 수준의 평균점수를 보면 참여 前에 비해 참여 後에 모두 상승한 것을 알 수 있다.

〈표3〉 훈련캠프 참여 학생의 성별 및 학년별 참여 前·後 간 신앙심 비교

		참여 前				참여 後			
		성별		학년		성별		학년	
		남	여	1/2학년	3/4학년	남	여	1/2학년	3/4학년
신앙심	빈도	43	62	62	42	37	46	50	33
	평균	3.78	3.83	3.75	3.90	4.14	4.02	3.96	4.25
	표준편차	0.71	0.61	0.71	0.56	0.58	0.57	0.61	0.48
	<i>t(p)</i>	-0.360(0.719)		-1.187(0.238)		0.946(0.347)		-2.317 ^{**} (0.023)	

* < 0.1 ** < 0.05 *** < 0.01

3. PIES 훈련캠프 참여 前·後간 대학생생활 적응도의 변화 비교

1) PIES 훈련캠프 참여 前·後간 대학생생활 적응도의 변화 비교

PIES 훈련캠프 참여를 통해 최근의 대학생생활 적응에 대한 인식이 어떤 식으로 변화되었는지를 비교하면 참여 前(평균 3.27점)에 비해 참여 後(평균 3.46점)에는 소폭(0.18점) 긍정적으로 변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8)나는 최근 들어 신경이 곤두서 있다’와 ‘3)나는 최근 들어 자주 우울해진다’는 각각 0.46점과 0.41점의 개선효과가 나타나 학생들의 학교생활에서 초래된 스트레스와 우울의 경감에 훈련캠프가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하겠다. 그러나 비록 매우 미미한 수준이긴 하지만 ‘25)나는 현재 대학원 진학에 관심이 많다’ 및 ‘21)나는 대학생생활에 적응이 힘들어 휴학에 대해 많이 생각한다. 에 대해서는 각각 -0.03점과 -0.06점 즉,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었다. 또한, ‘20)내가 흥미를 느끼는 것들은 대부분 대학의 학과공부와 관련이 없는 것들이다(0.00점)’과 ‘23)나는 대학에서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있다(0.01점)’, ‘7)나는 학과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지 못하다(0.02점)’, ‘9)나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공부를 충분히 잘 해낼 능력이 없는 것 같다(0.05점)’ 등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4〉 훈련캠프 참여 前·後 간 대학생할 적응도 변화 비교

단위: 점(표준편차), 점

구분	참여前	참여後	증감
1) 나는 현재의 대학생살에 만족하고 있다.	3.65 (0.93)	3.92 (0.87)	0.27
2) 나는 대학에 들어와서 속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들을 많이 사귀었다.	3.65 (0.95)	3.78 (0.98)	0.14
3) 나는 최근 들어 자주 우울해진다.	3.13 (1.08)	3.54 (1.06)	0.41
4) 나는 최근 들어 피곤하다고 느낄 때가 많다.	2.41 (1.02)	2.72 (1.10)	0.31
5) 나는 대학에서의 학업성적에 만족하고 있다.	2.95 (1.00)	3.09 (1.03)	0.13
6) 나는 내가 이 학교를 선택한 것에 대해서 만족한다.	3.64 (1.05)	3.89 (1.02)	0.25
7) 나는 학과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지 못하다.	3.00 (1.12)	3.02 (1.13)	0.02
8) 나는 최근 들어 신경이 곤두서 있다.	2.77 (1.06)	3.23 (1.16)	0.46
9) 나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공부를 충분히 잘 해낼 능력이 없는 것 같다.	3.53 (1.09)	3.59 (1.15)	0.05
10) 나는 최근에 식욕이 좋다.	3.36 (0.97)	3.54 (1.03)	0.18
11) 나는 현재의 주거형태에서 잘 생활해 나가고 있다.	3.89 (0.80)	4.00 (0.81)	0.11
12) 나는 최근에 머리가 자주 아프다.	3.23 (1.12)	3.47 (1.15)	0.24
13) 나는 최근에 학습의욕이 없고, 공부를 하려해도 집중이 잘 안 된다.	2.98 (1.08)	3.18 (1.09)	0.20
14) 나는 과모임, 동아리 활동, 동문회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3.38 (1.37)	3.52 (1.25)	0.14
15) 나는 최근에 대학교육의 가치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고 있다.	2.99 (1.07)	3.25 (1.06)	0.26
16) 나는 최근에 체중이 많이 변화되었다.	3.28 (1.11)	3.37 (1.21)	0.10

구분	참여前	참여後	증감
17) 나는 최근 들어 숙면을 취하기가 어렵다.	3.47 (1.24)	3.70 (1.16)	0.23
18) 나는 최근에 외롭다고 느낄 때가 많다.	3.10 (1.16)	3.37 (1.30)	0.28
19) 나는 요즘 건강상태가 좋은 것 같다.	3.01 (1.00)	3.34 (1.06)	0.33
20) 내가 흥미를 느끼는 것들은 대부분 대학의 학과공부와 관련이 없는 것들이다.	3.37 (1.15)	3.37 (1.11)	0.00
21) 나는 대학생활에 적응이 힘들어 휴학에 대해 많이 생각한다.	3.77 (1.21)	3.71 (1.33)	-0.06
22) 나는 대학생활과 관련된 스트레스 때문에 힘들다.	3.30 (1.23)	3.53 (1.23)	0.23
23) 나는 대학에서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3.86 (0.89)	3.87 (0.82)	0.01
24) 나는 최근 들어 작은 일에도 짜증을 잘 낸다.	3.22 (1.14)	3.52 (1.00)	0.30
25) 나는 현재 대학원 진학에 관심이 많다.	2.88 (1.30)	2.84 (1.31)	-0.03
대학생활적응도 평균	3.27 (0.51)	3.46 (0.56)	0.18

※ 3), 4), 7), 8), 9), 12), 13), 15), 16), 17), 18), 20), 21), 22), 24)는 역환산 항목임.

2) 훈련캠프 참여 학생의 특성별 대학생활 적응도 변화 비교

훈련캠프 참여 학생의 성별 캠프 참여 前 및 참여 後의 대학생활 적응변화 인식은 유의수준 내에서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마찬가지로 학년별 대학생활 적응에 대한 차이 역시 참여 前과 後 모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다만, 참여 前에 비해 참여 後 성별 또는 학년별 대학생활 적응도 인식의 평균 점수는 모두 향상되었다.

〈표5〉 훈련캠프 참여 학생의 성별 및 학년별 참여 前·後 간 대학생활적응도 비교

		참여 前				참여 後			
		성별		학년		성별		학년	
		남	여	1/2학년	3/4학년	남	여	1/2학년	3/4학년
생각 및 상황인식	빈도	43	62	62	42	37	46	50	33
	평균	3.33	3.24	3.23	3.33	3.46	3.45	3.41	3.52
	표준편차	0.58	0.47	0.48	0.57	0.60	0.53	0.56	0.56
	<i>t</i> (<i>p</i>)	0.894(0.374)		-0.942(0.349)		0.032(0.975)		-0.818(0.416)	

*<0.1 **<0.05 ***<0.01

4. PIES 훈련캠프 참여 前·後간 자아정체감의 변화 비교

1) 훈련캠프 참여 前·後간 생각 및 자아정체감의 변화 비교

PIES 훈련캠프는 참여 학생들로 하여금 자아정체감이 향상되도록 하는데 긍정적인 도움을 주고 있었다. 모든 자아정체감 사항들이 향상된 가운데 전반적으로 참여 前에 비해 참여 後 평균 0.20점의 상승이 나타났다. 특히 ‘12)나는 매일의 생활이 흥미로운 일들로 가득 차 있다(0.37점 향상)’, ‘6)나는 매우 에너지(힘)가 넘치는 사람인 것 같다(0.33점 향상)’, ‘7)나는 늘 가던 장소에 갈 때 여러 다른 길로 가는 것을 좋아한다(0.33점 향상)’ 등은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 향상을 보였다.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폭은 향상을 보인 자아정체성 항목으로는 ‘8)나는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호기심이 많다(0.06점 향상)’과 ‘1)나는 친구들에게 너그럽다(0.08점 향상)’ 항목이었다.

〈표6〉 훈련캠프 참여 前·後 간 자아정체감 변화 비교

단위: 점(표준편차), 점

구분	참여前	참여後	증감
1) 나는 친구들에게 너그럽다.	3.85 (0.73)	3.93 (0.73)	0.08
2) 나는 갑자기 놀라는 일을 당해도 금방 괜찮아지고 그것을 잘 이겨낸다.	3.60 (0.86)	3.87 (0.79)	0.27
3) 나는 평소에 잘 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일을 해보는 것을 좋아한다.	3.82 (0.96)	3.96 (0.88)	0.15

구분	참여前	참여後	증감
4) 나는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는 편이다.	3.64 (0.84)	3.78 (0.91)	0.14
5) 나는 전에 맛보지 못했던 새로운 음식을 먹어보는 것을 즐긴다.	3.56 (1.05)	3.72 (0.98)	0.16
6) 나는 매우 에너지(힘)가 넘치는 사람인 것 같다.	3.35 (0.99)	3.67 (0.88)	0.33
7) 나는 늘 가던 장소에 갈 때 여러 다른 길로 가는 것을 좋아한다.	3.22 (1.07)	3.55 (1.02)	0.33
8) 나는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호기심이 많다.	3.60 (0.94)	3.66 (0.89)	0.06
9) 나는 내가 만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을 좋아한다.	3.97 (0.69)	4.10 (0.73)	0.13
10) 나는 보통 행동하기 전에 생각을 많이 한다.	3.63 (0.87)	3.75 (0.95)	0.11
11) 나는 새롭고 다른 종류의 일하는 것을 좋아한다.	3.54 (0.86)	3.76 (0.89)	0.22
12) 나는 매일의 생활이 흥미로운 일들로 가득 차 있다.	3.29 (0.86)	3.66 (0.85)	0.37
13) 나 자신이 꽤 '강한' 성격을 가진 사람이라고 자신 있게 말한다.	3.14 (1.13)	3.33 (1.06)	0.18
14) 나는 다른 사람에게 화가 나도 상당히 빨리 괜찮아진다.	3.53 (1.03)	3.80 (1.01)	0.27
자아정체감 평균	3.55 (0.54)	3.75 (0.55)	0.20

2) 훈련캠프 참여 학생의 특성별 자아정체감 비교

훈련캠프 참여 前의 경우, 학생들의 자아정체감은 성별 및 학년별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성별에 따라서는 남학생들이 여학생들에 비해 자아정체감의 수준이 높았으며, 학년별로는 1/2학년에 비해 3/4학년의 자아정체감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었다. 반면, 훈련캠프 참여 後에는 학생들의 자아정체감이 성별에 따라 여전히 차이를 보여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지만, 학년별로 본다면 1/2학년과 3/4학

년 간의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훈련캠프 참여 前과 참여 後의 자아정체감의 평균점수가 향상된 것은 동일하지만, 상기 결과 즉, 참여 前에 1/2학년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자아정체감이 참여 後 3/4학년과 차이가 없어진 것으로 본다면 3/4학년에 비해 1/2학년의 자아정체감 향상 폭이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표7〉 훈련캠프 참여 학생의 성별 및 학년별 참여 前·後 간 자아정체감 비교

		참여 前				참여 後			
		성별		학년		성별		학년	
		남	여	1/2학년	3/4학년	남	여	1/2학년	3/4학년
자아 정체성	빈도	42	62	62	41	37	46	50	33
	평균	3.72	3.44	3.46	3.70	3.91	3.63	3.68	3.87
	표준편차	0.59	0.48	0.53	0.54	0.56	0.51	0.52	0.57
	<i>t(p)</i>	2.704 ^{***} (0.008)		-2.269 ^{**} (0.025)		2.396 ^{**} (0.019)		-1.594(0.115)	

*<0.1 **<0.05 ***<0.01

V. 논의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신앙성숙도와 자아정체감이 기독교 대학의 대학생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유추되며 이를 위한 기독교 영성프로그램이 신앙성숙도와 자아정체감의 확립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탐구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B 대학교의 PIES 영성프로그램 참여 전과 참여 후 간에 학생들의 신앙심 변화 정도를 살펴본 결과, 전반적으로 5점 만점에 참여 전 3.81에서 참여 후 4.08로 평균 0.27점이 향상된 가운데 긍정적 변화를 나타냈다. 특히 가장 높은 수준의 긍정적 변화를 보인 항목은 0.57점이 향상된 것으로 ‘나는 예수그리스도를 따르면서 배운 바를 매일의 삶에 적용한다’ 이다. 또한 ‘나는 기독교인들을 위해 봉사할 때 인정이나 칭찬받을 것을 기대하지 않는다(0.45점 향상)’ 등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성별 또는 학년별 신앙심 수준의 평균점수를 보면 참여 前에 비해 참여 後에 전반적으로 모두 상승한 것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성별 및 학년에 따른 PIES 영성프로그램 참여 前

과 참여 後의 신앙심의 차이 비교 결과를 살펴보면 참여 前에는 성별 및 학년에 따라 신앙심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참여 後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던 성별과 달리 학년별로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영성프로그램 참여 後 나타난 신앙심의 수준은 1/2학년제에 비해, 3/4학년제에 보다 높은 점수 차이를 보였다. 이는 고학년 대학생이 저학년보다 학년이 올라가면서 채플과 기독교 이해과목 등 신앙성숙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보다 많은 경험과 기회를 가지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둘째, PIES 영성프로그램은 참여 학생들에게 자아정체감이 향상되도록 긍정적인 도움을 주고 있었다. 참여 학생들의 자아정체감은 전반적으로 참여 前에 비해 참여 後 평균 0.20점이 상승하였다. 특히 ‘나는 매일의 생활이 흥미로운 일들로 가득 차 있다(0.37점 향상)’, ‘나는 매우 에너지(힘)가 넘치는 사람인 것 같다(0.33점 향상)’, ‘나는 늘 가던 장소에 갈 때 여러 다른 길로 가는 것을 좋아한다(0.33점 향상)’ 등 자아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PIES 영성프로그램 참여 前의 경우, 학생들의 자아정체감은 성별 및 학년별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성별에 따라서는 남학생들이 여학생들에 비해 자아정체감의 수준이 높았으며, 학년별로는 1/2학년에 비해 3/4학년의 자아정체감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었다. 반면, 훈련캠프 참여 後에는 학생들의 자아정체감이 성별에 따라 여전히 차이를 보여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지만, 학년별로는 1/2학년과 3/4학년 간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성별에 따라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자아정체감이 차이를 보이는 것은 공동체 프로그램 형태의 신체적 활동과 집단상담 및 그룹형태의 프로그램에서 적극적인 참여와 반응으로 해석된다.

셋째, PIES 영성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참여자의 대학생활 적응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참여 前(평균 3.27점)에 비해 참여 後(평균 3.46점)가 소폭(0.18점) 긍정적으로 변화를 나타냈다. 특히 ‘나는 최근 들어 신경이 곤두서 있다’와 ‘나는 최근 들어 자주 우울해진다’는 각각 0.46점과 0.41점으로 나타나 학교생활에서 야기된 스트레스와 우울감 정도가 영성프로그램 참여 후 어느 정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참여 학생의 성별과 학년별로 프로그램 참여 前 및 참여 後의 대학생활 적응변화 인식은 유의수준 내에서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참여 前에 비해 참여 後 성별 또는 학년별 대학생활 적응도 인식의 평균 점수는 모두 향상되었다. 이는 실시된 프로그램 단위가 일주일의 시간적인 제약으로 대학생활 적응 변화를

측정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었다고 보이지만 향후 대학생활 적응 가능성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이 평균 점수의 차이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결국 B 대학교의 영성 프로그램을 통해 대학생들이 신앙성숙도와 자아정체감에 도움이 되었던 내용들은 묵상, 예배, 공동체 활동 등이다. 공동체 생활에서 타인에 대한 마음을 열지 못함을 깨닫고 자신의 여러 부분의 미성숙한 점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보여주었다. 특히, 묵상과 찬양의 훈련에 대해 많은 흥미와 관심을 나타내 것은 일상의 분주함속에서 자신과 이웃, 공동체 속에서 자아를 찾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찾으려는 노력으로 해석된다.

결론적으로 기독교 대학의 대학생들의 신앙성숙도와 자아정체감의 확립과 향상을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최근 우리나라의 대학생들은 삶의 가치와 의미를 상실해 감으로써 그에 따른 제반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미래를 준비하는 대학생들에게 자아정체감의 확립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본다. 특히 기독교 대학의 설립 이념을 추구하는 기독교 대학의 교육에서는 대학생의 신앙성숙도와 자아정체감의 확립과 향상을 위해 꾸준히 영성 교육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기독교에서 의미하는 신앙성숙은 성경에 기초하여 하나님과 자신, 이웃과 나, 그리고 공동체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올바른 사랑과 이웃과의 사랑을 삶의 현장에서 실현시키는 것이다. 향후 B 대학교는 다양한 영성프로그램을 통해 신앙성숙도와 자아정체감을 증진할 수 있는 보다 많은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젊은 층의 눈높이에 다가갈 수 있는 영성 프로그램들이 기획되고 활용되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로는 B 대학교의 영성프로그램 한 사례를 다룬 것으로 다른 기독교 대학에 일반화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보인다. 또한 설문지에 의한 양적연구에만 치중하다 보니 대학생들의 신앙성숙도와 자아정체감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과 실험을 검증하는데 한계가 있어 추후 심층적인 질적 인터뷰 등의 보완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결과가 취업을 위주로 하는 우리나라 대학교육의 현장에서 경쟁을 위한 스펙 늘리기 보다는 지성·인성·감성·덕성이 강화된 역량 있는 인재양성 프로그램을 위한 기초 연구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참고문헌

- 고용수 (1994). 『만남의 기독교교육사상』. 장로회신학대학교 출판부.
- 김은정 (1995). “자기이해와 자기성장을 위한 집단상담, 학생지도 연구.” 연세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 김현정 (2006). “자기성장 집단 상담이 대학생의 자아정체감과 대인관계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논문. 동아대학교.
- 문석호 (1999). 『기독교 신앙의 의미 이해』. 기독교문서선교회.
- 박민수 (2001). “하나님과의 관계증진을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검증.” 박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
- 박아청 (2006). 『성경발달심리의 이해』. 교육과학사.
- 박신미 (2005). “기독교청년의 신앙성숙도와 자존감 및 정신건강과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충신대학교.
- 이경민·신민철 (2009). “무용전공 여대생의 자기효능감, 생활만족도 간 영향연구; 동적 여가활동을 중심으로.” 『관광 레저연구』. 23(7). 489-509.
- 오복자·강경아 (2000). “(Spirituality) 개념 분석.” 『대한간호학회지』. 30(5). 1148-1149.
- 오성춘 (1995). 『영성과 목회- 기독교 영성훈련의 이론과 실제』. 장로회신학대학교 출판부.
- 유정득 (1999). 『영성신학의 개발』. 학문사.
- 윤향숙, 외 (2011). “대학생의 자아분화, 스트레스 대처방식, 정신건강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교육논단』. 10(2). 1-25.
- 정옥분 (2005). 『청년발달의 이해』. 학지사.
- 최재희 (2005). “자아정체성과 하나님이미지와 신앙성숙의 관계연구.” 석사학위논문. 안양대학교.
- 한국청소년개발원 (2004). 『청소년상담론』. 교육과학사.
- Aumann, J. (1994). 『영성신학』. 이홍근. 분도출판사.
- Baker, R. W., & Siryk. B. (1984). Measuring academic of motivation of matriculating college freshman. *Journal of College Student Personal*, 2. 459-464.
- Calvin, John. (1537). *Instruction in Faith*. 『기독교 강요요약』. 이현기 (1986).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 Hackettm G. and N. E. Betz. (1986). Applications of self-efficacy theory to understanding career choice behavior. *Journal of Social Clinical Psychology* 4. 279-289.
- Knights, W. A. (2006). 『계슈탈트 목회상담』. 윤인·이한중. 시그마프레스.
- Nathaniel Braden. (1994). *The Six Pillars of Self-Esteem*. New York.
- Papalia, D. E, Olds, S. W, Feldman, R. D. (1994). *Human Development*.
- Richard J. Foster. (1982). 『영적 성장을 위한 제자훈련』. 서울 보이스사.

ABSTRACT

A Study on Faith Maturity and Ego- Identity of the Students

Yun-Young Choi (Baeksook University)

This Study to investigate the degree of faith maturity of a Christian student and to identify the relation between faith maturity and ego-identity. In order to examine this purpose, survey research was conducted on 120 Christian Students who attend a spiritual program in University.

For every single scale, SPSS Win 15.0 was used so as to have a result for the pre-, later test. The relationship between faith maturity, ego-identity and a spiritual program for Christian Student is significant.

In conclusion, it was found that the degree of faith maturity and ego-identity is influenced by spiritual program. Therefore, University have to consider of faith maturity and ego-identity of Christian Student and provide services to improve those.

Key Words: spiritual program, faith maturity, ego-identity, pre-, later test

